거침없는 1위 질주 문제는 체력·부상

김선빈

KIA 후반기 체력 저하·부상과의 전쟁

김선빈 발목·최형우 허리·임기영 폐렴에 고통

이명기·김민식은 체력 저하… 힘겨운 여름나기

무더위 속 부상과의 싸움이 '호랑이 군단'의 숙제가 됐다.

잘 나가는 KIA 타이거즈의 2017시즌 달라진 모습 뒤에는 '부상 면역력'이 있었다.

매년 주전급 선수의 부상에 고민 많던 시즌을 보냈지만 올 시즌은 부상이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부상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김주찬이 손목 부상으로 재활군 신세가 됐었고, 이범호는 왼쪽 허벅지 통증으로 이탈했었다. 전반기 마운드의 한 축이었던 임기영도 폐렴으로 한달 가량 자리를 비웠고, 좌완 필승조 심동섭도 어깨 부상으로 엔트리에 말소됐었다. 전반기 막바지에는 안치홍이 왼 옆구리 근육통으로 엔트리에서 빠졌다.

주축 선수들이 부상이 이어졌지만 예년 같은 부상 여파는 없었다. 치열한 내부 경쟁 속 탄탄해진 선수층 덕분에 무리 없이 시즌이 흘러왔고, KIA는 1위 자리를 놓치지 않았다.

하지만 후반기 부상과 체력 저하가 KIA의 보이지 않는 약점이 되고 있다.

재활군에 이름을 올릴 정도의 부상병은 없지만, 특별 관리 선수들이 등장하고 있다.

김선빈은 8월 첫 경기였던 kt 위즈와의 홈경기에서도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지난 주중 SK와의 경기에서도 두 차례 교체 선수로 나왔던 김선빈은 발목이 문제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발목이 좋지 못했던 김선빈은 상무에서 뛰던 지난 시즌에도 발목 인대 부상을 당하기도 했다. 뼛조각도 김선빈을 괴롭히고 있다. 못 뛸 정도의 상태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모든 경기를 완벽하게 소화할 수 있는 정도도 아니다.

타율 1위 김선빈이 발목 부상에 발목 잡힌 가운데 타선의 허리 최형우는 허리가 조심스럽다. 최형우는 최근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면서 페이스가 떨어졌었다. 지금은 증세가 많이 좋아졌지만 "아파도 뛴다"며 욕심 많은 최형우가 조심스러운 벤치다.

투수진에서는 갑작스러운 부상이 아쉽다. 임기영의 거침없던 기세가 폐렴에 한 풀 꺾인 모습이다. 임기영은 6월 7일 한화 이글스를 상대로 시즌 두 번째 완투승을 거둔 다음 날 폐렴으로 엔트리에서 말소됐다. 폐에 찬 물을 빼는 시술 등을 하면서 회복시간이 걸렸고, 7월 7일에서야 1군에 복귀할 수 있었다. 두 경기 불펜에서 워밍업을 하며 선발로 복귀했지만 결과가 좋지 못하다. 선발로 복귀해 던진 3경기 성적은 14.1이닝 15실점(평균자책점 9.42). 불펜에 새로운 전력으로 떠올랐던 좌완 김명찬도 심한 감기 증세를 보이며 1일 엔트리에서 이름이 빠졌다.

체력저하도 고민이다. 톱타자로 맹활약했던 이명기는 지난 주말 두산 3연전에서 단 하나의 안타로 때리지 못했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찾아온 7월, 많은 타석을 소화하느라 최근 페이스가 뚝 떨어졌다. 다이너마이트 타선 덕에 하루 6차례 타석에 들어선 날도 많았던 이명기는 7월 교체 출장했던 한 경기를 제외하고 20경기에 선발로 나와 103타석을 소화했다.

지난 시즌 88경기에 나와 144타수 37안타를 기록했던 게 자신의 역대 최다기록인 '안방마님' 김민식도 벌써 93경기에서 255타수 54안타를 찍으면서 체력 문제를 노출하고 있다.

설상가상 KIA는 후반기 첫 경기부터 연장전을 소화하는 등 벌써 4번의 연장 혈투를 펼쳤다. 그래도 여름 위기 속 베테랑들의 활약이 눈에 띈다.

최근 한방이 살아난 이범호는 "시즌 초반에 역할을 많이 못 해서, 체력적인 부담도 덜하고 지금은 내가 역할을 할 때이다"고 각오를 다졌고, 최고참 임창용은 "밥 맛있게 잘 먹고, 많이 푹 자는 게 여름을 나는 방법이다"고 언급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덕아웃 톡톡

300홈런 앞 둔 이범호 "광주서 날려야지"

신입 호랑이 김세현 "광주가 멀긴 멀더라"

▲광주에서 하면 좋겠는데

안방에서 300번째 홈런을 날리고 싶은 이범호다. 전반기와 다른 후반기를 보내고 있는 이범호는 1일 경기 전까지 후반기 12경기에서 43타수 13안타를 때리며 0.302의 타율을 기록하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중간에 5차례 담장을 넘기면서 결정적인 순간을 만들고 있다. 7월 마지막 경기였던 두산전에서는 멀티 홈런을 기록하면서 298개의 홈런을 적립했다. 이범호는 1일 "특별히 달라진 것은 없다. 초반에 많이 못 해줬는데 컨디션이 좋다. 300홈런을 앞두고 있는데 이왕이면 광주에서 쳤으면 좋겠다"고 웃었다.

▲그런데 오늘

김기태 감독을 놀라게 하고, 안타까워하게 한 좌완 김명찬이다. 짧은 팔 스윙으로 140㎞ 중반을 찍으면서 까다로운 승부를 펼친 김명찬. 최근 4경기에서 4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으며 좋은 인상을 남겼다. 하지만 김명찬은 1일 감기에 심하게 걸려 엔트리에서 말소됐다. 엔트리 변동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자 김기태 감독은 "좋은 피칭을 했다. 그런데 (하필)오늘"이라며 김명찬의 말소에 대해 아쉬워했다. 한편으로는 벤치의 고민을 덜어준 감기였다. KIA는 1일 트레이드로 영입한 김세현을 엔트리에 등록했다. 불펜진의 동반 상승세 속에 말소자를 고민했던 벤치는 큰 고민 없이 김명찬을 내려보냈다.

▲멀다

광주로 오던 심정을 묻는 말에 '신입 호랑이' 김세현은 "멀다"고 웃었다. 지난 시즌 구원왕인 김세현은 지난 31일 트레이드를 통해 넥센에서 KIA로 유니폼을 갈아입었다. 몸 상태가 좋다는 보고에 따라 김기태 감독은 1일 김세현을 엔트리에 등록시켰다. "광주로 오면서 정말 멀다는 생각을 했다"며 웃은 김세현은 "와서 보니까 분위기가 정말 좋다"고 새 팀에 합류한 소감을 밝혔다. 또 "내 공이 좋지 않아서 맞았던 것이다. 카운트 싸움에서 불리하게 갔었다"고 올 시즌 부진에 관해 이야기한 김세현은 "야구를 하러 왔다. 내가 좋아하는 야구를 하러 왔다. 기회가 주어졌다고 생각한다. 감독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긍정적으로 밝게 새 마음으로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김경문 NC 감독 종양진단 입원… 당분간 더그아웃 비워

김경문 NC 다이노스 감독이 뇌하수체 양성 종양 진단을 받으면서 치료 때문에 당분간 더그아웃을 비우게 됐다.

NC 구단은 1일 "지난 주말 동안의 입원과 치료로 김 감독의 건강 상태가 많이 호전됐다는 점을 알려드리게 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김 감독의 상태를 전했다.

김 감독은 지난달 28일 급체와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분당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

NC에 따르면 병원에서 자기공명영상(MRI)과 각종 혈액검사를 받은 김 감독은 뇌하수체에서 직경 약 2㎝ 미만의 작은 선종이 발견됐다는 진단을 받았다.

주치의는 "이 선종은 악성이 아닌 양성 종양이어서 외과적 제거 시술이 당장 필요하지는 않은 상황"이라는 소견을 냈다.

다만 병원은 뇌하수체의 호르몬 분비 기능에 이상이 있는지 추가로 검사했고, 김 감독이 호소한 어지럼증과 구토 증세의 원인은 전해질 수치 저하 때문이었다고 진단했다.

NC는 "김 감독은 치료로 기존 증세가 완화됨에 따라 죽·국 등 음식을 서서히 섭취하는 등 건강 상태가 호전되고 있다"고 전했다.

김 감독은 추가적인 치료를 받으며 며칠간 경과를 지켜볼 예정이다.

NC는 "구단 측과 김 감독의 협의에 따라 치료 및 회복 기간에는 지난 주말과 같이 김평호 수석코치가 더그아웃을 책임지기로 했다"며 "김 감독의 쾌유와 많은 성원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다르빗슈 LA 이적… 류현진 다시 적자생존 정글로

후반기 '괴물 본능'을 되찾은 류현진(30·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이 다르빗슈 유(31) 영입으로 또 한 번 '적자생존'의 정글에 떨어졌다.

다저스 구단은 1일 텍사스 레인저스에 유망주 3명을 넘겨주는 대가로 일본인 투수 다르빗슈를 영입했다. 논 웨이버 트레이드 마감 직전 터진 '블록버스터 트레이드'다.

당장 다저스는 선발진 정리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꾸준히 선발 등판하며 수술 전 모습을 되찾아가는 류현진에게 직·간접적인 영향이 갈 수밖에 없다.

최근 5경기에서 다저스는 마에다 겐타-브록 스튜어트-알렉스 우드-리치 힐-류현진으로 선발진을 꾸렸다.

에이스 클레이턴 커쇼가 허리 부상, 브랜던 매카시가 오른손 물집으로 부상자 명단(DL)에 올라간 가운데 다르빗슈 영입이 당장 류현진의 선발 로테이션 한자리를 위협할 가능성은 낮다. 대체 선발로 1경기 등판한 스튜어트가 빠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가벼운 부상인 매카시가 먼저 돌아오고, 이달 말 커쇼까지 복귀하면 류현진도 생존 경쟁을 피할 수 없다. /연합뉴스

안세현·김서영 '2019 광주'의 희망

부다페스트 세계수영 대표팀 귀국… 배영 원영준 가능성 확인

2017 국제수영연맹(FINA) 헝가리 부다페스트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서 선전한 한국 수영 국가대표팀이 1일 귀국했다.

대표팀은 폐막 다음 날인 지난달 31일 부다페스트를 떠나 체코 프라하에서 한국행 비행기로 환승해 이날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이번 대회에 27명의 선수가 참가한 대표팀은 메달 획득에 실패했지만, 대신 안세현(22·SK텔레콤)과 김서영(23·경북도청) 등 새로운 희망을 발견했다.

안세현은 이번 대회 접영 100m 결승에서 57초07의 기록으로 5위로 최고 순위 신기록을 세우더니, 접영 200m 결승에서는 2분06초67로 4위에 올라 이남은의 종전 여자 선수 세계선수권 최고 순위(8위)를 넘어섰다.

또한, 한국신기록만 3차례(접영 100m 2번, 200m 1번) 돌파하며 '신기록 제조기' 명성을 이어갔다.

한국 개인혼영 간판 김서영은 여자 개인혼영 200m 결승에서 2분10초40에 레이스를 마쳐 8명 중 6위를 차지했다.

남녀 통틀어 한국 선수가 개인혼영 결승에 진출한 건 김서영이 최초다.

한국 수영의 간판 박태환(28·인천시청)은 2011년 중국 상하이 대회 이후 6년 만에 출전한 세계선수권대회에서 건재를 과시했다.

자유형 400m 결승 4위·200m 결승 8위·1,500m 예선 9위로 메달 획득에는 실패했지만, 출전한 결승 종목마다 최고령으로 경기를 치러 20대 초반 젊은 선수들에게 밀리지 않았다.

이 밖에 남자 배영 50m에서 25초02로 한국신기록을 세운 원영준(19·전남수영연맹)과 지난해 리우 올림픽에 이어 올해 세계선수권대회에서도 다이빙 10m 플랫폼에서 결승 진출에 성공한 우하람(19·국민체육진흥공단)도 이번 대회를 통해 가능성을 보여줬다.

한편 박태환은 "마지막 세계선수권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아쉬움이 밀려들었다"며 "이번 세계선수권에서 아쉬운 건 메달을 따지 못해서가 아니라, 즐기지 못해서다. 2년 뒤 세계선수권을 나갈지, 이번이 마지막이 될지 많이 생각했다. 그래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싶었다. 과정은 좋았다. 준비도 열심히 했고, 이번 대회 좋은 결과 기대도 했다"고 2년 뒤 광주 대회에 불참할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박태환은 또 "내가 수영계에서 물러나도, 후배들이 더 좋은 성적을 낼 거라는 믿음이 생겼다. 감히 제가 평가하긴 그렇지만, 한국 수영 발전이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연합뉴스

2017 국제수영연맹 헝가리 부다페스트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서 선전한 한국 수영 국가대표팀이 1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접영 200m 결승에서 2분06초67로 4위에 오른 안세현(왼쪽)과 남녀 통틀어 한국 선수 최초로 개인혼영 결승에 진출한 김서영이 입국장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랑프리 준우승 여자배구팀 귀국

홍성진 감독

"선수들 점점 발전 자랑스럽다"

한 달 동안 4개국을 돌며 치열하게 싸워 2017 국제배구연맹(FIVB) 그랑프리 세계여자배구대회 2그룹 준우승을 차지한 한국 여자배구대표팀이 귀국했다.

홍성진(54)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이 1일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 도착하자, 팬들은 큰 함성을 보냈다.

여자 배구대표팀은 지난 31일 열린 폴란드와 결승전에서 패해 우승을 거두지는 못했지만, 14명의 엔트리를 채우지 못하고 12명이 싸우는 어려움 속에서도 값진 성과를 거뒀다.

홍성진 감독은 "1, 2, 3주차 경기가 진행할수록 팀이 정상 궤도에 오르는 걸 느꼈다"며 "체력적인 문제로 결승전에서는 패했지만, 우리 선수들이 자랑스럽다. 우리 선수들은 점점 발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신장이 월등한 남미와 유럽 팀을 상대로도 경기를 잘 풀어나갔다. 중장기 계획을 잘 세워 손발을 맞춰나가면 1년 뒤에는 70% 정도 팀이 완성될 것 같다. 궁극적인 목표인 2020년 도쿄 올림픽 본선 출전과 메달 획득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귀국한 대표 선수들은 이틀을 쉬고 3일 진천선수촌에 모여 9~17일까지 필리핀 라구나에서 열리는 제19회 아시아여자배구선수권대회를 준비한다.

그랑프리에 출전한 선수 중 김해란(흥국생명)이 무릎 부상으로 아시아선수권에 나서지 못하지만, 다른 선수들은 필리핀 대회에서도 한국 배구를 위해 뛴다.

도쿄 올림픽 출전에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는 2019년 아시아선수권대회의 시드를 받기 위해선 대표팀은 이번 대회에서 4강 이상의 성적을 올려야 한다.

세터 이재은(KGC 인삼공사), 센터 김유리, 리베로 나현정(이상 GS칼텍스)이 대표팀에 합류해 엔트리 14명을 채운다.

홍성진 감독은 "아시아선수권대회에서는 선수를 고르게 기용해 체력 안배를 하겠다"며 "약팀과 경기할 때는 김연경(중국 상하이)을 쉬게 할 생각이다. 정말 중요할 때만 활용할 것이다"고 밝혔다.

/연합뉴스